

금호산업, 대우건설 지분 2천만주 처분

금호고속 등 5개사업 지분 일괄 매각 추진도

금호 아시아나그룹 정상화 탄력 기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밸류업을 재촉하고 있다. 보유 중인 대우건설 지분을 매각하고, 금호산업 고속사업부(금호고속)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베트남 금호아시아나플라자, 흥국유한공사의 지분 매각도 추진 중이다.

금호산업은 26일 회사가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2000만주를 개장 전 대량매매를 통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처분액은 2730억원.

이로써 금호산업의 대우건설에 대한 지분비율은 9.8%(4071만6512주)로 감소했다.

회사 측은 “채권단과 약속한 자구

계획 이행과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매각이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산업의 내실을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채권단과 맺은 자구계획에 따라 나머지 대우건설 지분도 조만간 떨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날 체분한 주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대우건설 지분을 팔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약 5500억원에 달한다.

금호산업은 대우건설 지분과 함께 금호고속,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베트

남 금호아시아나플라자, 흥국유한공사 지분도 등 모두 5개 사업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그룹의 모태이자 실질적 지주회사인 금호고속에 대해서는 그룹 경영이 정상화되면 되사를 수 있도록 쿨옵션 조항을 달아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워크아웃 졸업은 채권단의 체점표를 충족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언제 경영 정상화가 된다고 시한을 못박을 수는 없다”면서도 “워크아웃 졸업에 통상 3~5년 걸리니 그를 안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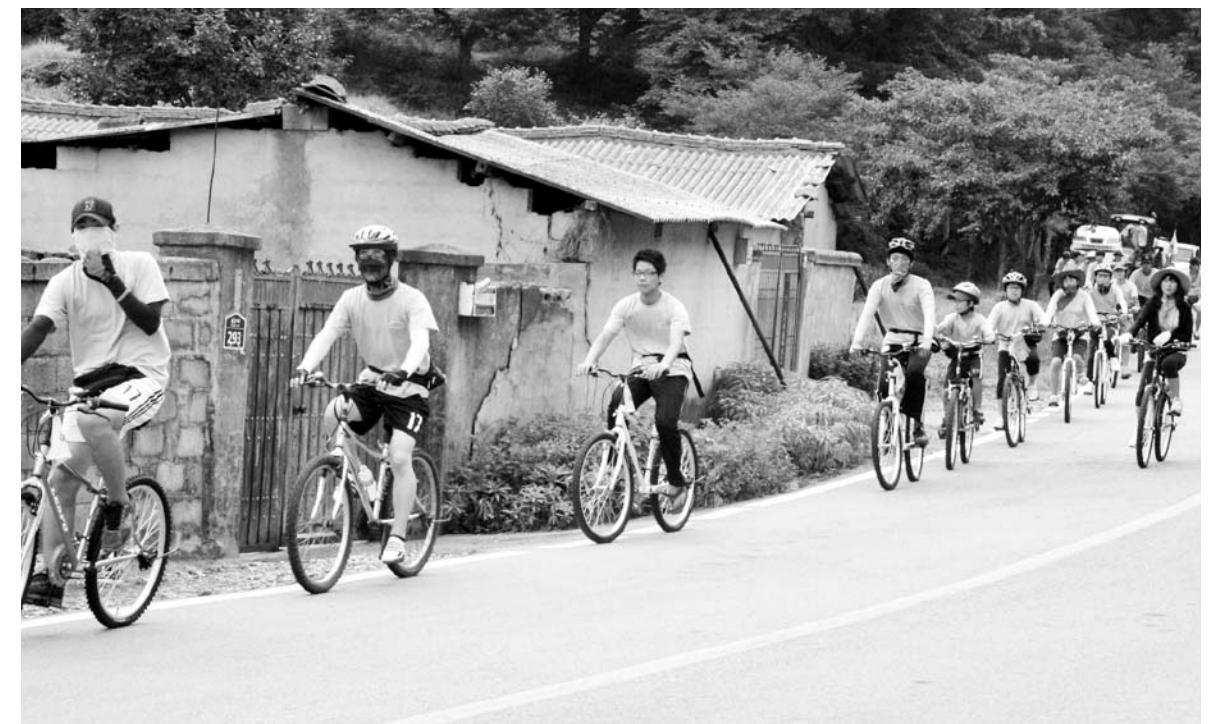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한 일괄 매각이 성사되면 그룹의 구조조정을 매듭짓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대한 통운 매각으로 경영정상화의 큰 장애물은 넘었다고 본다”며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금호산업만 조금 더 살아난다면 경영정상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워크아웃 졸업은 채권단의 체점표를 충족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언제 경영 정상화가 된다고 시한을 못박을 수는 없다”면서도 “워크아웃 졸업에 통상 3~5년 걸리니 그를 안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한농연 청소년 자전거 투어

(사)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가 주최한 ‘친환경 1번지 농도 전남 청소년 자전거투어 대회’가 26일 영광군 불갑사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7박8일 일정의 이 대회에는 1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금호석화 등 여수산단에 8800억 투자

자동차·가전산업 대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가 여수산단에 8000억 원대를 투자하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과 여수시는 26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투자 협약을 맺고, 금호석화와 금호풀리콤, 금호파에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등 4개 회사가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총 8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금호석화는 타이어 원료 등으로 사

용되는 합성고무 S-SBR 6만t을, 금호풀리콤은 타이어 투브와 자동차 부품, 전기·전선 절연 피복재 등의 원료인 EDPM 6만t을, 금호파에비화학은 폴리카보네이트 원료인 BPA 15만t을, 금호미쓰이화학은 가전 및 자동차 부품원료인 MDI 5만t을 증설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각종 인·허가 편의 등 행

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호석화 한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자동차와 가전산업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가 실현되면 공사기간 연인원 65만명의 일자리 창출, 130여명의 신규 인력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자와 전문가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지경부가 주도한 논의 내용에 따르면 대안 주유소의 운영주체는 공익단체,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회 공헌 차원의 대기업, 공동출자한 소상공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연합뉴스

정부, 기름값 낮추기 ‘대안 주유소’ 육성 검토

정부가 기존 주유소에 비해 석유제 품을 싸게 파는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육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기름값을 낮추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요 정유사들의 압도적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주유소 체계를 깨뜨리고자 이런 방향을 잡았다고 밝히고 이날 업계 관계

롯데마트, 고줄·전문대 졸 100명 뽑는다

롯데마트(사장 노병용)는 고교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 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그룹차원에서 이뤄지는 대졸자 공채와는 별개로 롯데마트가 주관하며 입사자는 롯데마트 각 매장에서 일반 영업관리나 신선식품 영업관리, 시설관리 등을 맡게 되고 1년간 근무하면 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유통업체나 식료·서비스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나 관련학과 전공자, 근무 희망 점포에서 가까이 사는 자는 우대하며 시설관리직은 전기나 소방, 기계 자격증을 소지하면 유리하다.

접수 기간은 26~31일이며 롯데마트 채용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지원서를 내면 된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168.70 (+18.22)
▲ 코스닥지수	535.85 (+5.95)
금리 (국고채 3년)	3.84% (+0.02)
원·달러 환율	1,051.10원 (-5.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전남농협, 경영성과 그랜드슬램 달성

농협 전남본부가 올 상반기 경제·신용사업에 이어 종합업적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 경영성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26일 올 상반기 경제·신용사업 경영성과 평가에서 각각 전국 1위에 오른 데 이어 최근 종합업적 평가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제사업부문에서는 올 들어 6월 말까지 농축산물 1조4878억원어치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인 1313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전체 판매액의 29%를 차지하는 양곡류가 429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억원(1%) 증가했고, 과실류 3271억원(13%), 축산류 2369억원(13%), 채소류 2290억원(10%) 등을 기록했다.

이는 농협 전남본부가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동선별을 통한 출하가 957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18개 광역연합사업단에서 452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농산물 유통시스템 강화에 노력한 결과로 평가됐다.



상반기 경제·신용, 종합업적 평가 전국 1위 기록

농축산물 판매 10%, 수신 7천억·여신 500억 증가

김용복 농협 전남본부장이 26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2011 상반기 종합업적 평가’ 시상식에서 최원병 회장으로부터 ‘최우수 농협’ 표장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신용사업에서는 올 들어 6개월간 총수신 7000억원, 총여신 500억원,

보험사업 400억원이 각각 순증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올해 농업인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사업 확대를 새해 화두로 정하고 수익성과 건전성, 고객관리서비스 중심의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영업점에 대해 현지 경영컨설팅, 사업총괄분석 등을 통해 영업점 여건에 맞는 맞춤형 경영관리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총여신 대비 부실여신비율인 경전성비율이 0.34%로 0%대를 실현했고,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인 관련 실익보험판매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용복 전남본부장은 “고령화·재정자립도 등 열악한 지역여건을 극복하고 전국 최우수 농협으로 선정된 것은 모든 임직원의 긍정적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금융 편의에 온 힘을 다해 더욱 신뢰받는 농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롯데마트, 고줄·전문대 졸 100명 뽑는다

롯데마트(사장 노병용)는 고교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 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그룹차원에서 이뤄지는 대졸자 공채와는 별개로 롯데마트가 주관하며 입사자는 롯데마트 각 매장에서 일반 영업관리나 신선식품 영업관리, 시설관리 등을 맡게 되고 1년간 근무하면 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유통업체나 식료·서비스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나 관련학과 전공자, 근무 희망 점포에서 가까이 사는 자는 우대하며 시설관리직은 전기나 소방, 기계 자격증을 소지하면 유리하다.

접수 기간은 26~31일이며 롯데마트 채용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지원서를 내면 된다.

〈연합뉴스

| 주 쇼 | 광주일보사
| 주 관 |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첫째 날 > 9월 2일(금)
남진 현숙 조항조 윤태규 백승일
식전공연 | 농산물가장식 | 아줌미축전기막식
축하공연(기아금과 비보이의 만남) | 아줌미필씨름대회 | 밸리댄스경연(예선) | 아줌미영상편지 | 유명기수축하콘서트
※ 9월 1일(목) | 전야제 | 품비경연대회(예선) | 아줌미가요제(예선)
※ 최종사상에 의해 출연진 및 프로그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 9월 3일(토)
혜바라기 유리상자 박영규
시·군예술단공연 | 호남예술단공연 | 아줌미골든벨 | 팔도사투리대회(속풀이발언대) | 디문화기족 장기자랑대회(예선) | 밸리댄스경연(결선) | 아줌미시낭송대회 | 가을속이야기 콘서트(7080가수)

홍보판매부스 운영자모집
• 선착순 모집배치
• 참여자격 : 호남권 특산품생산단체
• 참가문의 : 062-220-0555